

노인성질환 재가노인의 외로움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가족지지 및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Adaptation Flexi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the Meaning of Life in Elderly People Living in Home with Senile Diseases

최보람¹, 전해성^{2*}

Bo-Ram Choi¹, Hye-Seong Jeon^{2*}

요약

본 연구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가족지지와 적응유연성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인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용 노인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286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외로움은 지각된 가족지지와 생의 의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가족지지는 생의 의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로움은 적응유연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적응유연성은 생의 의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외로움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셋째, 외로움이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성질환이 있고 외로움을 겪는 재가노인의 생의 의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각된 가족지지와 적응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 노인성질환 재가노인, 외로움, 생의 의미, 지각된 가족지지, 적응유연성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adaptability in the effect of loneliness on the meaning of life in elderly people living in home with senile disease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380 elderly people using the elderly day care center and finally, 286

1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Gyeonggi University, Suwon-si,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boram6588@naver.com

2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si, Korea [Professor]
e-mail: hsjeon@dankook.ac.kr

* 본 연구는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의 일부를 요약하여 작성되었음

Received(May 18, 2021), Review Result(1st: May 31, 2021), Accepted(June 11, 2021), Published(June 30, 2021)



© 2021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copies of the data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loneliness had a nega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family support, adaptability, and the meaning of life. On the other hand, the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adaptability had sta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meaning of life.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family support was significant in the effect of loneliness on the meaning of lif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adaptability was significant in the effect of loneliness on the meaning of life.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the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adaptability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meaning of life for the lonely home-aged elderly with senile diseases.

Keyword : elderly people living in home with senile diseases, loneliness, meaning of life, perceived family support, adaptation flexibility

1. 서론

만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 뿐만 아니라 현저한 신체적·기능적·정서적 질환까지 가중되어 다양한 생활상의 부적응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당면한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만성 노인성질환을 가진 재가노인은 가장 심각한 사회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되어 복합적인 삶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잃는 연속적 상실감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비록 만성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이처럼 신체적 고통, 심리적 위축, 생활고 등의 다중 고통을 겪어야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고유한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인생의 성공적 노화를 지향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존엄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 노년기에 반드시 성취해야할 주요 인생 과업이다. 노인성질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 질환으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및 기타 핵의 기타 퇴행 질환이 포함되어있다 [1].

노인에게 있어서 생의 의미란 노년기의 자아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로, 지나온 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남은 생의 희망을 찾게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가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심리적 요인으로 노인의 외로움을 제시하고 있다 [2]. 외로움은 다른 사람으로 부터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며, 사회적 관계가 실제로 결핍되었거나 앞으로 결핍될 것이라고 지각하여 나타나는 반응이다.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신체적 노화, 경제적인 어려움, 배우자와의 사별, 사회적 역할 상실 등에 의한 것으로, 노인의 생의 의미를 낮추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3].

한편, 노인의 외로움과 생의 의미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족지지가 갖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제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의 우울감을 비롯한 외로움의 심리적 영향이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지지감을 낮추며 [4].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부정적 신체 증상 및 심리적 증상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5]. 또한 지각된 가족지지와 생의 의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는 노인 삶의 의미, 삶의 질 및 성공적 노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6][7].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가족지지가 중요함을 강조하

고 있어서, 가족지지는 노인의 생의 의미 실현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노인의 외로움 및 생의 의미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이 갖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제시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외로움과 적응유연성의 관계에서 외로운 사람들은 외로움을 적게 경험한 사람에 비해 사교적이지 못하고,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며,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대외적 기술의 부족 등으로 전반적인 적응유연성 수준이 낮음을 제시한다 [8]. 외로움과 같은 취약한 심리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은 적응유연성이 낮고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기 쉽다. 또한 적응유연성과 생의 의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이 더해진 노인의 경우 낮은 적응유연성을 갖기 쉽고 이것이 생의 의미를 낮추는 부정적 영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9].

이상과 같은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외로움과 생의 의미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족지지와 적응유연성이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는 네 가지의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다룬 연구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의 노인들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지지하고 노년의 삶 안에서 생의 의미 구축과 실현을 위한 학문적인 고찰과 탐색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생의 의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외로움, 지각된 가족지지, 적응유연성을 설정하여 외로움과 생의 의미의 관계를 탐색하고, 외로움과 생의 의미 관계에서 지각된 가족지지 및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 지각된 가족지지, 적응유연성, 생의 의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지각된 가족지지가 외로움과 생의 의미 사이를 매개하는가?
- 연구문제 3.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적응유연성이 외로움과 생의 의미 사이를 매개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서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서울 및 경기, 인천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 노인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은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및 기저 핵 등의 퇴행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으로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가정에 있는 노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면접식의 대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질문의 이해가 가능한 노인들을 모집하기 위해 노

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중 인지검사 MMS-E 점수 10점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신체적 어려움으로 설문지의 답변을 힘들어 할 경우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설문에 앞서 본 연구의 연구주제, 연구목적, 익명성,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고, 설문 도중 조사대상자가 더 이상 진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외로움 척도, 생의 의미 척도, 가족지지 척도, 적응유연성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0개의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총 380부의 설문지 배부되어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며 질문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94부의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 수는 총 286명이였다.

2.2 분석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척도는 아래와 같다.

생의 의미 척도 (Purpose in Life test: PIL test)

생의 의미는 Frankl의 기본개념인 실존적 공허를 측정하기 위해 남궁달화 [10]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인생목적, 목표달성, 생활만족, 실존적 공허, 미래 열망, 내·외적 자아 통제 및 인생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생의 의미에 대한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3으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외로움 척도 (Korean Geriatric Loneliness Scale: KGLS)

외로움은 한국 노인의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시은 [11]이 개발한 도구로서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하위요소로는 가족관계 외로움 5문항, 사회적 외로움 6문항, 소속감 3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84이다.

지각된 가족지지 척도

지각된 가족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Cobb [2]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긍정문항 9개 부정문항 2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가족지지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의 계수는 .81이다.

적응유연성 척도 (Resilience Scale: RS)

적응유연성은 손미숙 [1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용으로는 자기신뢰, 삶의 의미, 평정, 인내, 독립적 존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4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적응유연성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78이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 생의 의미, 지각된 가족지지, 적응유연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일원배치분산 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과 생의 의미의 관계에서 가족 지지와 적응 유연성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하여 Baron &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3. 분석결과

3.1 노인성질환 재가노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성질환 재가 노인 286명의 인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는 80명(28%) 여자는 206명(72%)이었고,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으로 65세~70세가 14명(4.9%), 71세~75세가 27명(9.4%), 76세~80세가 70명(24.5%), 81세 이상이 175명(61.2%)이었다. 학력은 무학 92명(32.2%), 초졸 68명(23.8%), 중졸 52명(18.2), 고졸 62명(21.7%), 대졸 9명(3.1%), 대학원이상 3명(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특성	구분	명(n)	비율(%)	누적비율(%)
성별	남자	80	28.0	28.0
	여자	206	72.0	100.0
연령	65~70세	14	4.9	4.9
	71~75세	27	9.4	14.3
	76~80세	70	24.5	38.8
	81세 이상	175	61.2	100.0
학력	무학	92	32.2	32.2
	초졸	68	23.8	55.9
	중졸	52	18.2	74.1
	고졸	62	21.7	95.8
	대졸	9	3.1	99.0
	대학원이상	3	1.0	100.0
	합계	286	100.0	

3.2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 생의 의미, 지각된 가족지지, 적응유연성의 기술통계 분

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모든 측정변수들은 왜도가 2이하, 첨도가 4이하로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생의 의미는 평균 3.19 최고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적응유연성이 평균 3.3, 표준편차 .99, 지각된 가족지지 평균 3.19, 표준편차 .66, 외로움 평균 2.14, 표준편차 .50 로 나타났다. 주요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표 2]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측정변인	(N = 286)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외로움	1.00	3.55	2.14	.50	.05	.05
생의 의미	1.05	5.00	3.19	.80	-.23	.04
지각된 가족지지	1.09	4.00	3.03	.66	-.50	-.18
적응유연성	1.00	5.00	3.30	.99	-.22	-.59

3.3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 생의 의미, 지각된 가족지지, 적응유연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각 변수들 간의 관계의 유의미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로움은 지각된 가족지지($r=-.775^{**}$), 적응유연성($r=-.601^{**}$) 및 생의 의미($r=-.625^{**}$)와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지각된 가족지지는 적응유연성($r=.656^{**}$), 생의 의미($r=.552^{**}$)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고, 적응유연성은 생의 의미($r=.76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외로움과 생의 의미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족지지의 매개 효과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과 생의 의미 관계에서 지각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1단계,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서 독립변인 외로움과 매개변인 지각된 가족지지는 $\beta = -.78^{***}$ ($t=-20.58^{***}$)으로 부(-)의 방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서 독립변인 외로움과 종속변인 생의 의미는 $\beta = -.63^{***}$ ($t=-13.42^{***}$)으로 부(-)의 방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서 매개변인 지각된 가족지지와 종속변인 생의 의미는 $\beta = .17^*$ ($t=2.36^*$)으로 정(+)의 방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수치가 2단계보다 감소해야 하는 부분에

서 독립변인 외로움과 종속변인 생의 의미의 $\beta = -.49^{***}(t = -6.74^{***})$ 로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과 생의 의미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지각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외로움과 생의 의미 관계에서 지각된 가족지지의 매개효과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Family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the Meaning of Life

단계	B	SE	β	t
1단계: 독립→매개 독립변인: 외로움 매개변인: 지각된 가족지지 $R^2 = .600, \Delta F = 423.314^{***}$	-1.03	.05	-.78	-20.58***
2단계: 독립→종속 독립변인: 외로움 종속변인: 생의 의미 $R^2 = .391, \Delta F = 180.173^{***}$	-1.01	.08	-.63	-13.42***
3단계: 독립, 매개→종속 독립변인: 외로움 매개변인: 지각된 가족지지 종속변인: 생의 의미 $R^2 = .40, \Delta F = 94.33^{***}$	-.79 .21	.12 .09	-.49 .17	-6.74** 2.36*

3.5 외로움과 생의 의미의 관계에서 지각된 적응유연성의 매개 효과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과 생의 의미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1단계,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서 독립변인 외로움과 매개변인 적응유연성은 $\beta = -.60^{***}(t = -12.65^{***})$ 으로 부(-)의 방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서 독립변인 외로움과 종속변인 생의 의미는 $\beta = -.63^{***}(t = -13.42^{***})$ 으로 부(-)의 방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부분에서 매개변인 적응유연성과 종속변인 생의 의미는 $\beta = .60^{***}(t = 13.18^{***})$ 으로 정(+)의 방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수치가 2단계보다 감소해야 하는 부분에서 독립변인 외로움과 종속변인 생의 의미의 $\beta = -.26^{***}(t = -5.77^{***})$ 으로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과 생의 의미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에 대해 아래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외로움과 생의 의미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adaptation flexi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the Meaning of Life

단계	B	SE	β	t
1단계: 독립→매개 독립변인: 외로움 매개변인: 적응유연성 $R^2=.361, \Delta F=159.931^{***}$	-1.191	.094	-.60	-12.65***
2단계: 독립→종속 독립변인: 외로움 종속변인: 생의 의미 $R^2=.391, \Delta F=180.173^{***}$	-1.009	.075	-.63	-13.42***
3단계: 독립, 매개→종속 독립변인: 외로움 매개변인: 적응유연성 종속변인: 생의 의미 $R^2=.624, \Delta F=232.409^{***}$	-.426 .491	.074 .037	-.26 .60	-5.77*** 13.18***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외로움과 지각된 가족지지, 외로움과 적응유연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외로움과 생의 의미의 관계에서 지각된 가족지지 및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취약성을 갖고 있는 노인성질환 재가노인의 생의 의미를 높이기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이 지각된 가족지지 및 생의 의미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이 높을수록 지각된 가족지지가 낮게 나타나며 생의 의미 수준 또한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노인의 부정적 심리에 의해 지각된 가족지지가 다르게 지각된다는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며 [13] 노인의 생의 의미 수준에 외로움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다 [14]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5]. 또한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지각된 가족지지가 생의 의미 수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가족들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 노인일수록 생의 의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노인의 삶의 질과 성공적 노화에 유의하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5][6].

둘째,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지각된 가족지지가 외로움과 생의 의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은 그들이 지각한 가족지지를 통해 생의 의미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사회지지 하위요소인 지각된 가족지지가 부정적 심리상태와 삶의 의미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지지하며 [16], 취약

한 상황의 가족구성원의 생의 의미, 심리적 안녕감, 자기관리 이행, 자아통합감이 향상되는데 있어서 지각된 가족지지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17].

셋째,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적응유연성이 외로움과 생의 의미 사이를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은 적응유연성을 통해 생의 의미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적응유연성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간접적으로 중재하며 적응을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적응유연성이 노인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보호 요인을 증대시킨다고 기존의 연구와도 유사하다 [18]. 한편,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외로움은 적응유연성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외로움이 높을수록 노인의 적응유연성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부정적 심리상태인 외로움과 사회적 기술 및 적응유연성의 관계에서 부적 유의성을 나타낸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8]. 또한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적응유연성은 생의 의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노년기 적응유연성이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 자아통합감, 자기수용 수준에 정적으로 유의하다는 연구와 유사하다 [19].

본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생의 의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으로 제시되어 온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 중 지각된 가족지지 및 적응유연성을 선정하여 이 두 개의 변인이 노인의 외로움과 생의 의미의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노인의 지각된 가족지지 및 적응유연성이 외로움과 생의 의미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유의하게 할 수 있음에 주목하여 노인성질환이 있는 재가노인의 지각된 가족지지와 적응유연성의 증진을 통한 생의 의미 수준을 높이는 가족복지의 임상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각 조사 대상에 대해 면접식의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자기보고에 의한 주관적 답변으로 객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먼저 연구대상자의 과학적 표집 방법으로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 대상자의 범주도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로 확대하여 다양한 각도의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생의 의미에 대한 폭 넓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을 높이는 시도와 더불어, 노인의 생의 의미를 실제로 높이기 위한 가족복지의 임상적 개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enior Policy Divis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uide to Health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20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jong, Republic of Korea, 11-1351000-000079-10, December 2009. [Online]. Available: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ls.jsp?PAR_MENU_ID=03&MENU_ID=032901&SEARCHKEY=TITLE&SEARCHVALUE=%EB%85%B8%EC%9D%B8%EB%B3%B4%EA%B1%B4#
- [2] S. Cobb,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 38, no. 5, September 1976, pp. 300-314, doi: 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3] S. J. Lee,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Meaning in Life among Community dwelling Elder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4.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bproxy.dankook.ac.kr/link?id=T13467639>.
- [4] M. G. Le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spiritual well-being in elderl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2.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bproxy.dankook.ac.kr/link?id=T8370955>.
- [5] S. J. Kim, "A study on recognizing family support, solitariness and defree of life satisfaction with the ag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un Moo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02.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bproxy.dankook.ac.kr/link?id=T8607995>.
- [6] M. H. Kim, K. R. Shin,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5, no. 2, May 2005, pp. 35-52.
- [7] G. T. Reker, "Theoretical perspective, Dimention, Measurement of Existenial Meaning In G. T", *Exploring Existential Meaning: Optimizing Human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K. Chainberlain, Eds., London, United Kingdom, Sage Publication Inc, 2000, pp. 39-58.
- [8] M. Hojat, "Loneliness as a function of parent-child and peer relations", *Journal of Psychology*, vol. 112, no. 1, September 1987, pp. 129-133, doi: 10.1080/00223980.1982.9923545.
- [9] M. J. Heisel, G. L. Flett, "Psychological resilirnce to suicide ideation among older adults", *Clinical Gerontologist*, vol. 31, no. 4, October 2008, pp. 51-70, doi: 10.1080/07317110801947177.
- [10] D. W. NamKung, "The Meaning of Life and Existentialism Education",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10, no. 2, May 1983, pp. 3-5.
- [11] S. E. Lee, "Development of the Korean Geriatric Loneliness Scale (KGLS)", *J Korean Acad Nurs*, vol. 49, no. 5, October 2019, pp. 642-651, doi: 10.4040/jkan.2019.49.5.643.
- [12] M. S. Son, "(The) effect of the elderly's life stress on resili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forgiveness", Doctoral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o Nam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2.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bproxy.dankook.ac.kr/link?id=T12740907>.
- [13] M. Pinquart, S. Sorensen, "Influences on Loneliness in Older Adults: A Meta-Analysi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23, no. 4. June 2010, doi: 10.1207/153248301753225702.

- [14] M. Pinquart, "Creating and Maintaining Purpose in Life in Old Age: A meta analysis", *Aging International*, vol. 27, no. 2, March 2002, pp. 3-15. doi: 10.1007/s12126-002-1004-2.
- [15] A. K. Ekwall, B. Sivberg, I. R. Hallberg, "Loneliness as a predictor of quality of life among older caregivers", *Journal of Nursing*, vol. 49, no. 1, January 2005, pp. 23-32, doi: 10.1111/j.1365-2648.2004.03260.x.
- [16] W. N. Lee, "The caregiving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parents of adul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amily resilience and coping style", Doctoral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Jeon Nam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6.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bproxy.dankook.ac.kr/link?id=T14209077>.
- [17] R. Gillibrand, J. Stevenson, "The extended health belief model applied to the experience of diabetes in young people",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 vol. 11, no. 1, March 2006, pp. 155-169. doi: 10.1348/135910705X39485.
- [18] E. I. Fassing, "Attachment and resilience as predictors of adjustment to college in college freshmen",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Northern Colorado University, USA, 2003. [Online]. Available: <https://www.proquest.com/openview/bf96d5867096e2bfffddf80ac4c4f8a2/1?pq-origsite=gscholar&cbl=18750&diss=y>
- [19] G. Wagnild, H. M. Young, "Resilience among older wome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 22, no. 4, winter 1993, pp. 252-255, doi: 10.1111/j.1547-5069.1990.tb00224.x.